



Background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80여 개의 천문대가 운영되고 있고, 이는 천문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천문대의 수는 한정적으로 관측과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문대는 주로 2000년대 초반 국책으로 천문 우주 과학의 지원과 관심도 증가에 따라 유족소으로 설립된 것으로, 대다수의 노후화된 시설과 확립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 산업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 천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천문학의 발전과 가이 문화 자원을 활용한 현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측과 관광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신개념 천문대'의 '지역의 창조성을 느낄 수 있는 계층 있는 숙박시설'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공간에서 별과 함께 해 왔던, 함께하는, 함께하는, 함께하는 순리를 잊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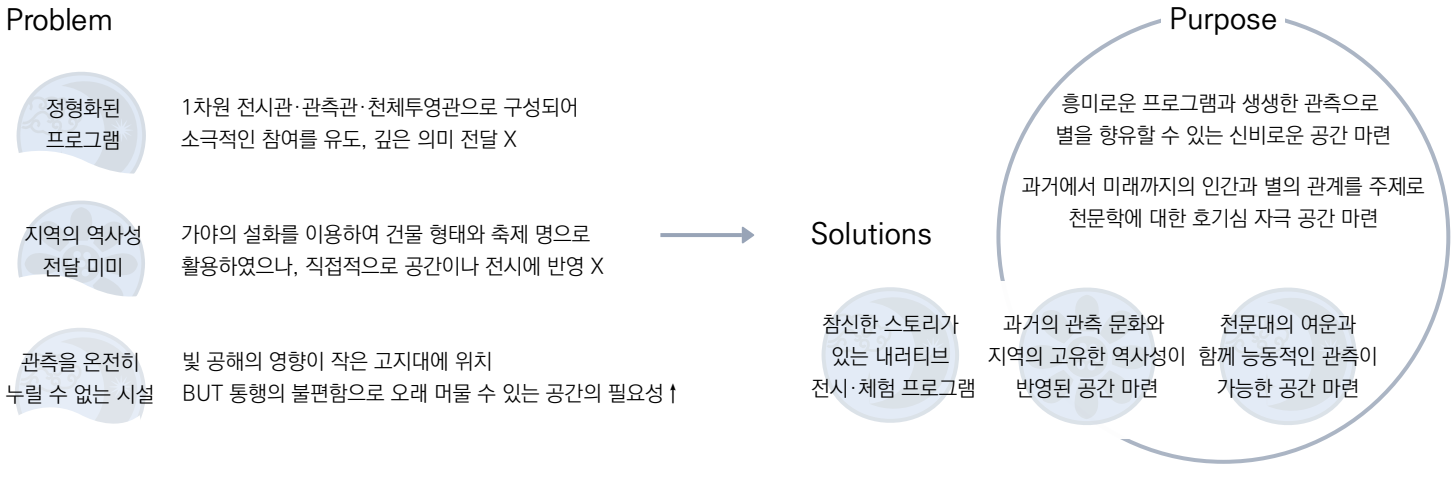
Sit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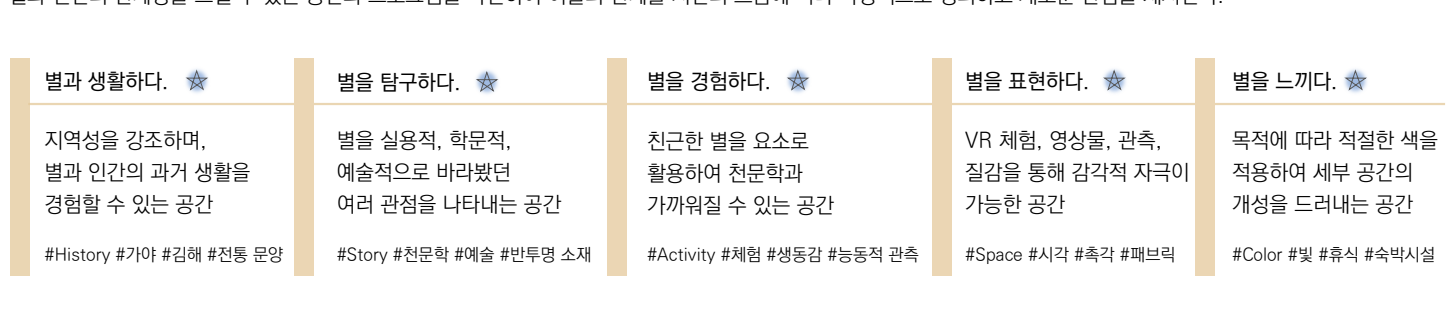
Literature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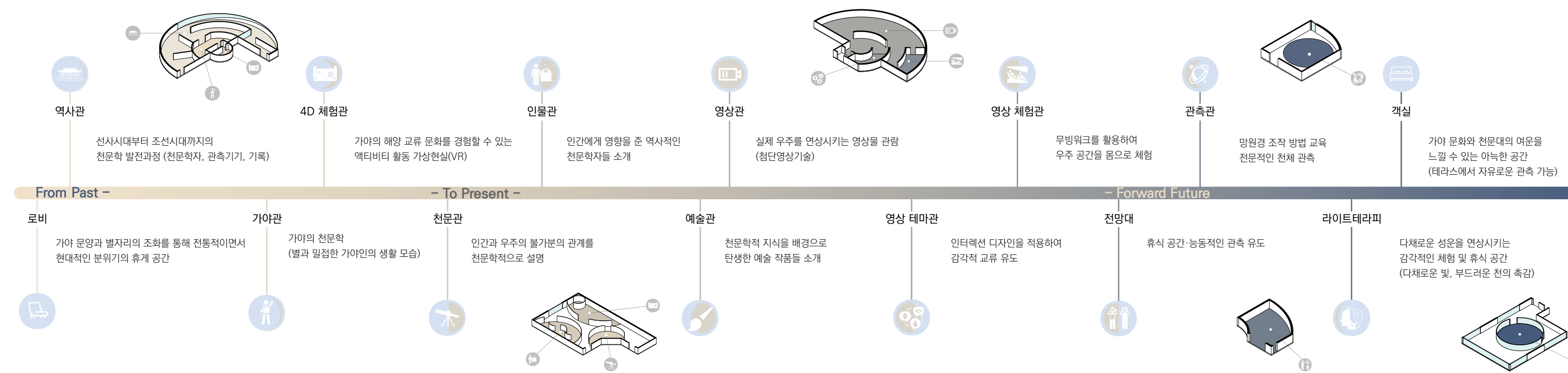
Problem __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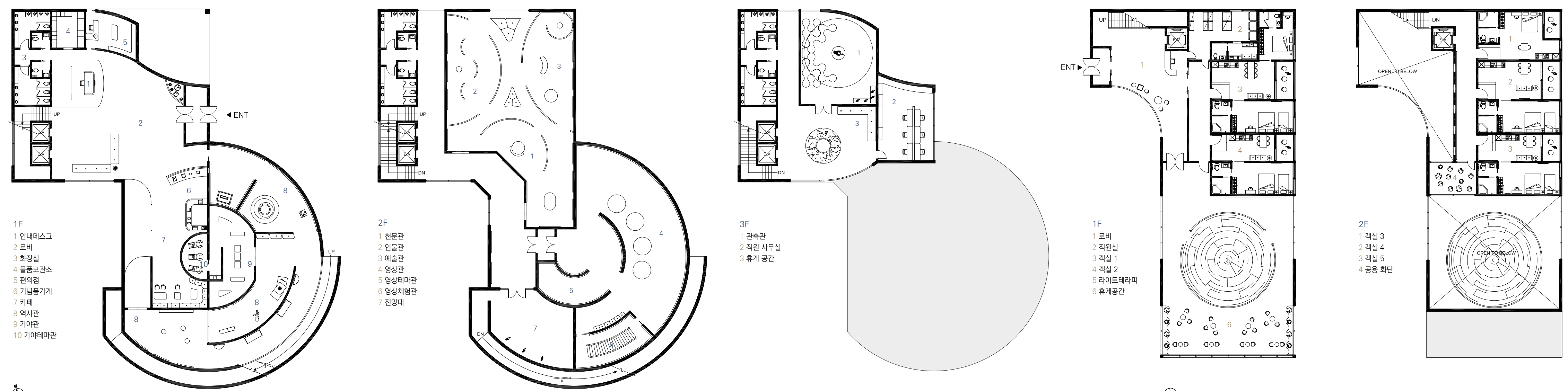
Design Goal



Sequence in Space



Floor Plan



Concept

"윤슬"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찬물결 → 별과 함께 흐르는 인간의 시간
 '굴림이 흐르는 물결의 윤슬은 반짝이게 출러가는 인간의 삶과 달이었다.'
 '윤슬의 반짝임을 공간 곳곳에 표현하여 별과 인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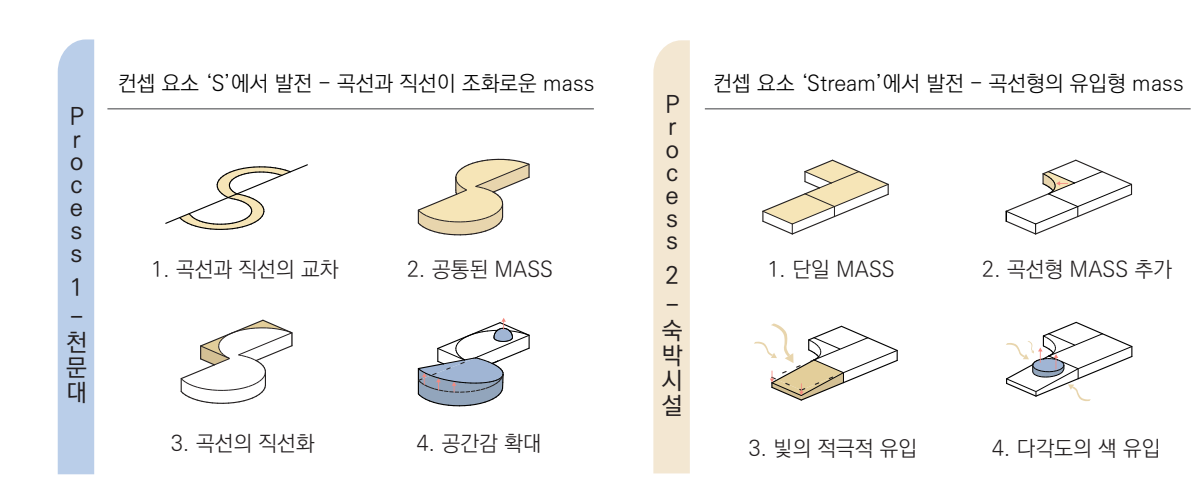
Concept word

1. 빛나다 : 빛이 반사되어 반짝거리거나 움직인다.
2. 비치다 : 빛과 모양이 나타나 보인다.
3. 물결 : 자랑하게 흐르는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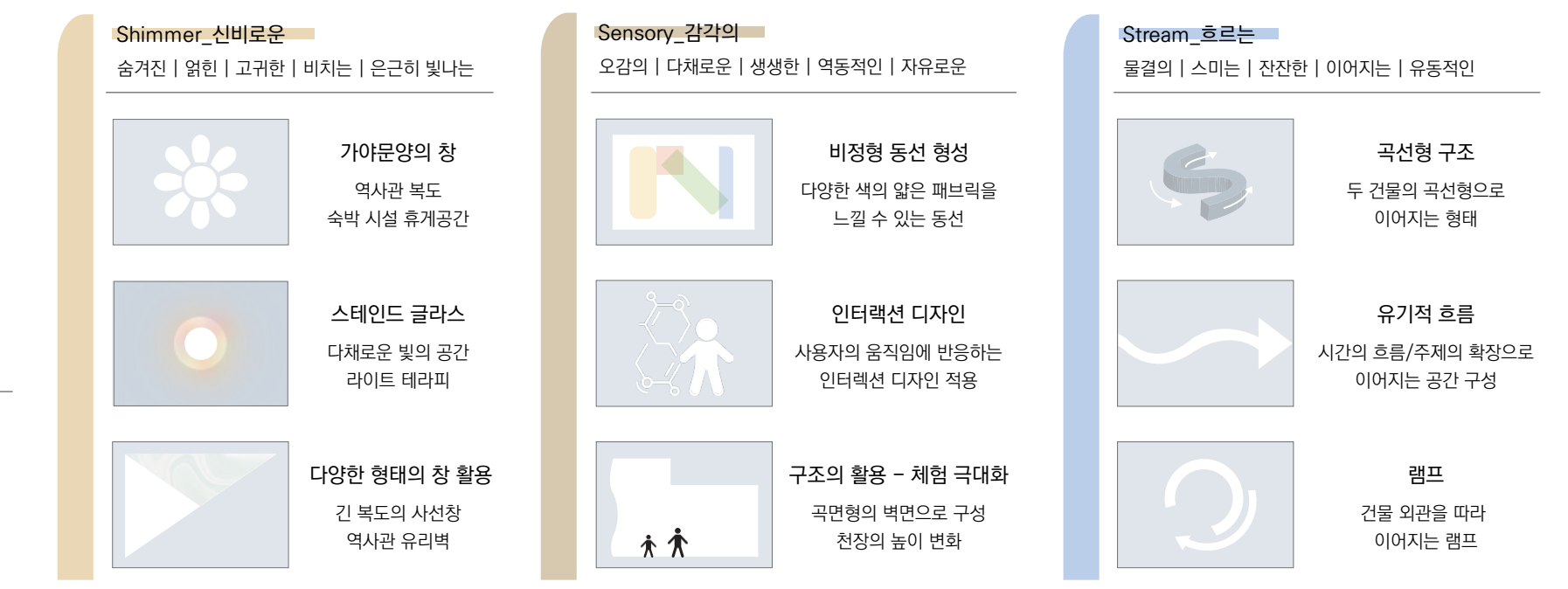
Planning

S
 Shimmer, 신비로운
 Sensory, 감각의
 Stream, 흐르는

Mass Process



Development



Master Plan



Pattern Design

